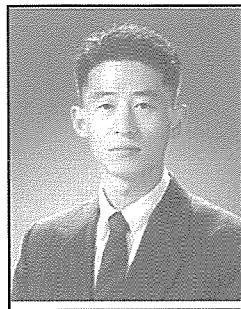


기고

전자산업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분석



김대성 과장
KEA산업총괄팀

I. 대기업 → 2차벤더 지원현황

1. 대기업의 2차벤더 협력체제 미구축
- 국내 전자업계 대기업은 2차 벤더보다는 주로 1차벤더와 사업 연계-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1차벤더들과의 협력체제로 한정되어 있음
- 따라서, 2차벤더에 대한 지원은 1차벤더들이 실시

2. 2차벤더 지원동향

- 2차벤더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품질·생산성 향상 지원
-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자금, 시설장비(라인), 금형, 검사 자동화 일부

- 품질·생산성 부문은 인력파견 지도, 생산인력 교육훈련, 공정개선, 정보화, 품질합리화, 고문 제도 일부 운영

3. 대기업 개선방향
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관행 개선
-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교류 확대로 개발동기 부여
- 기술개발 지원 및 적절한 개발비 보전
- 수직적 계열화 보다는 수평적 협력관계 지향(무리한 단가인하 요구 완화)
- 대기업의 과도한 인증자료 요청 개선
- 외국업체 납품할 경우, 제품인증 보증 확약서 등의 간단한 레터로 대체
- 국내업체는 인증내역, 데이터 등의 상세자료 요구 및 Format 상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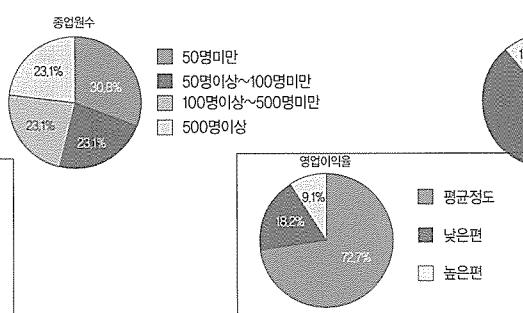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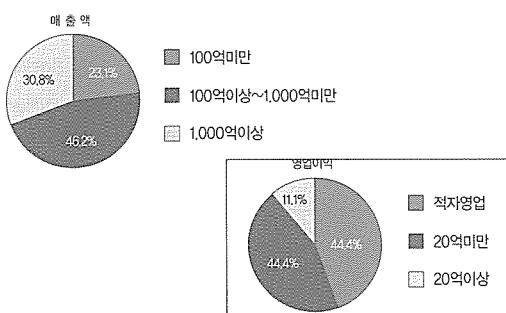
II. 1차벤더 조사결과

1. 1차벤더 현황 (2005년 기준)

- 매출액 100~1,000억원 규모의 응답기업이 약 80%, 종업원수는 100인 미만에서 1,000여명을 보유한 다양한 중소/중견업체로 구성
- R&D 투자는 응답기업의 증가 10~50억원 규모, 영

업이익은 20억미만과 20억이상의 흑자경영 업체 비중이 각각 44%로 조사되었음

- 영업이익율은 대부분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, 동종 기업간의 과당경쟁 보다는 균형있는 성장 지향



2. 수탁기업 보유 현황 (2005년 기준)

-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30개사 이하의 수탁기업 보유
- 매출액 500억원 이하, 종업원수 100인 이하 사업장 이대부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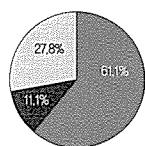
- 100개 이상의 수탁기업을 보유한 중견업체도 꽤 차지
- 매출액 500~2000억원, 종업원수 100~1,000명 규모

3. 수탁기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중요도

- 세부 부문(7개) : 부품의 원가/품질 경쟁력, 기술력, 품질경쟁력, 원천기술개발, 공동개발영역, 시스템 모듈 개발능력, 상호비전공유 향상

-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현재 보다는 향후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
-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0% 내외

부품의 원가경쟁력 향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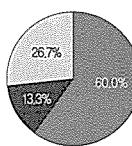
부품의 기술력 향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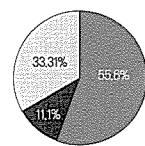
품질 경쟁력 향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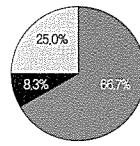
원천기술개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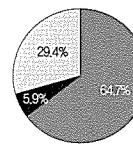
공동개발영역 확대



시스템모듈 개발능력



상호비전의 고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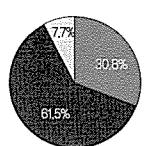


■ 향후 중요도
■ 2000년 충족도
□ 현재 충족도

4. 경쟁력 향상 부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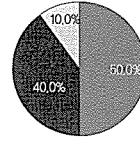
- ‘품질 · 생산성’ (62%)과 ‘기술개발 능력’ (31%) 향상 시급
- 기타 국내외 마케팅 능력 및 원가경쟁력 확보
- 품질 ·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극복과제
- 전자업종은 기술이 가장 빠르게 진보하는 산업으로, 중소업체도 대부분 첨단 시설 · 장비 보유
- 하지만, 생산인력 숙련도(50%) 미숙과 정보화(40%) 수준 저조

- 대기업의 품질향상 요구와 납품가 인하 압박, 재료비 상승 부담
- 기타 돌발사태 대응능력 부족
- 기술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극복과제
- 기술개발 자금난이 가장 심각(60%),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인력도 부족하여, 정부?대기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
- 기타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비전 공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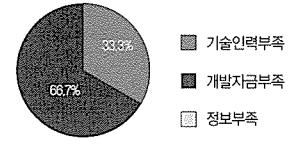


■ 기술개발능력
■ 품질 생산성
□ 마케팅능력

품질, 생산성으로 답한 경우



기술개발능력으로 답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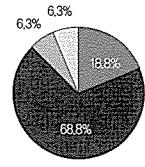
■ 기술인력부족
■ 개발자금부족
□ 정보부족

5. 수탁기업 지원 현황

- 응답기업의 6가 수탁기업에게 부품 수급과 직접으로 연관된 ‘품질 · 생산성 향상’ 지원에 주력
- 약 20%는 중장기 비전 차원에서 기술개발능력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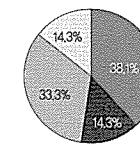
지원

- 품질 ·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탁기업에 인력을 파견하여, 협의 후 공정개선 등 제반환경 개선 지원



■ 기술개발능력확충
■ 품질, 생산성향상
■ 마케팅능력향상
□ 기타

품질, 생산성으로 답한 경우



기술개발능력으로 답한 경우



■ 인력지원
■ 자금지원
□ 시설장비지원

6. 수탁기업 지원시, 정부 지원현황

- 원재료·소재를 공급하는 2차벤더 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저조(20% 내외)

-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자자금과 시설 장비 일부 지원

7. 정부 및 수탁기업에 대한 건의사항

구 분	정 부	수탁기업
기술 개발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기술·R&D 인력 지원 계측기 및 장비 지원 2차벤더 기술개발 교육 및 장비구입 지원금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발기간 단축 경쟁사 대비 빠르고 안정된 제조·개발 기술 확보
품질·생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산인력에 대한 체계적·지속적인 교육/훈련 무상교육 기회 확대 첨단기술 설비의 단기 인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품질의식 고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(설비) 도입, 인력수준 향상 대량생산 및 불량률 최소화
마케팅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특허품의 대기업 추진 방지 관련정보 공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인력 양성 자가브랜드 실현(특허)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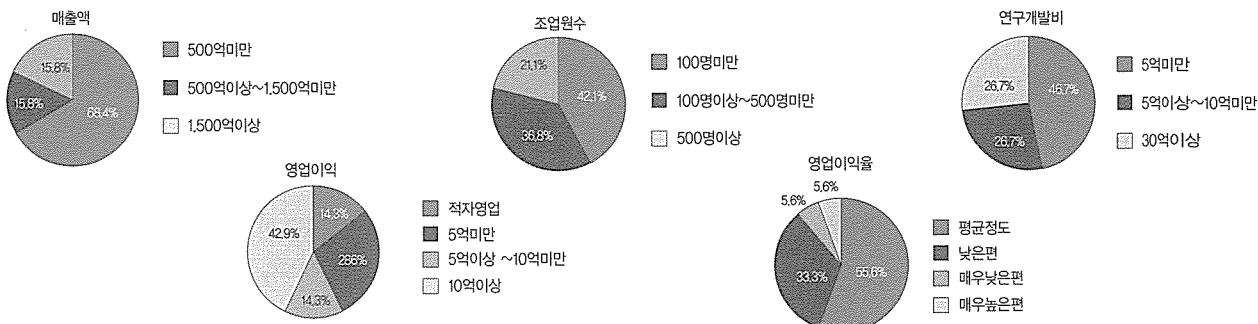
III. 2차 협력업체

1. 2차벤더 현황

- 응답기업 中 매출액 500억 미만 규모 및 종업원수 200인 이하인 중소업체가 63.4%, 나머지 36.6%는 매출액 1~3천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조사되었음
- R&D 투자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5억원 미만 규모이고 영업이익은 10억 이상이 43%, 1억미만 또는

적자도 1/3을 차지

- 영업이익율은 대부분 경쟁사들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, 기업간의 과당경쟁 보다는 균형있는 성장 지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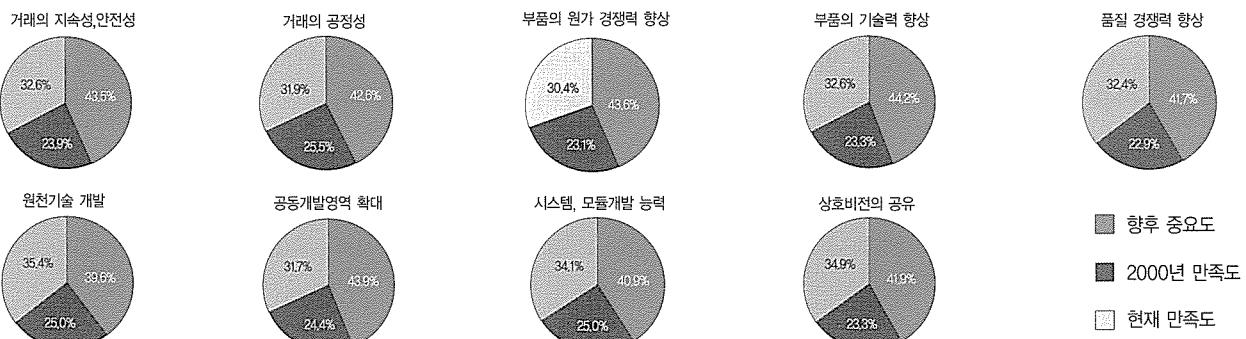


2. 위탁기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중요도

- 세부 부문(9개) : 거래의 지속성·안정성·공정성, 부품 원가경쟁력·기술력 향상, 품질경쟁력 향상, 원천 기술개발, 공동개발영역 확대, 시스템·모듈 개발능력, 상호비전 공유

- 응답기업의 40% 이상이 현재 보다는 향후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

-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0~35%



3. 기업 경쟁력 현황

● 기술 중요도

- 응답기업의 55%가 자사 공급부품 기술능력이 위탁기업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,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● 협력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

- 응답기업의 70%가 위탁기업을 향후 이익경쟁 보다는 동반성장의 협력파트너로 발전 기대

● 기술 경쟁력

- 응답기업의 90%가 자사 제조기술 능력이 세계수준과 동등 이상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

● 원가 경쟁력

- 응답기업의 75%가 위탁기업 공급가가 세계 글로벌 경쟁업체와 비슷하다고 판단, 다만 중국?대만 기업들의 저가 공세는 부담으로 작용

● 종업원 숙련도

- 응답기업의 절반이 자사 근로자들의 노동 숙련도가 세계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, 하지만 체계적 ·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필요

● 원가경쟁력 기여도

- 응답기업의 90%가 위탁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, 안정된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

● 품질개선 기여도

- 응답기업의 85%가 위탁기업의 품질개선 및 신제품개발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, 위탁기업과의 활발한 교류로 품질경쟁력 제고

● 개선 및 신개발 부품

- 응답기업의 75%가 위탁기업과의 거래로 기술능력 향상 및 품질개선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

● 품질개선 및 원가 절감

-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위탁기업과의 많은 거래경험은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음

● 거래물량 증감

- 응답기업의 40%는 2~3년전 대비 현재 위탁기업과의 거래물량이 크게 늘어났음, 2차벤더 기업규모 확대 추세

4. 경쟁우위 부문

- 응답기업의 60%가 품질 · 생산에 있어 경쟁업체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
- 선진 시설 도입,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제반

여건 개선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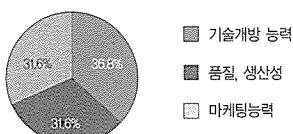
- 그리고, 32% 정도가 기술개발능력이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음

5. 경쟁력 향상 부문

- 기술개발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, 품질·생산성과 마케팅능력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

- 세부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개발자금 부족, 생산인력 숙련도 저도, 마케팅 전문인력 및 시장정보 부족 등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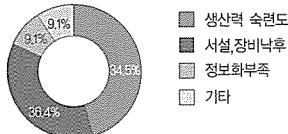
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강되어야 할 부분



기술개발능력으로 담한 경우



품질, 생산으로 담한 경우



마케팅능력으로 담한 경우



6. 위탁기업 지원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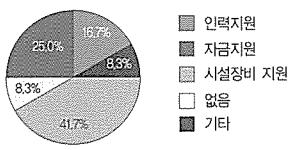
- 응답기업의 절반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다고 응답
- 자금규모가 영세한 2차벤더에게 있어서 위탁기업과의 협력체계 활성화는 생산·기술개발·마케팅 향상 등에 필수적임
- 일부 기업은 품질생산성(19%), 기술개발능력(19%) 지원을 받고 있음

- 품질·생산성 지원사항은 위탁기업 인력들이 파견되어 자사 생산인력 교육훈련, 공정개선 및 정보화 등이 있음
- 기술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와 인력 지원,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해서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지원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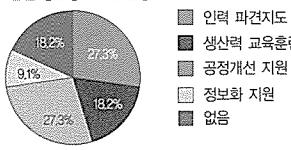
위탁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받고있는 분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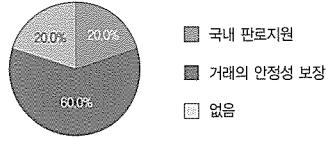
기술개발능력으로 담한 경우



품질 생산성으로 담한 경우



마케팅능력으로 담한 경우



7. 정부 지원현황

- 2차벤더의 절반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
- 정부 지원정책 홍보 및 기업 정보수집 능력 부족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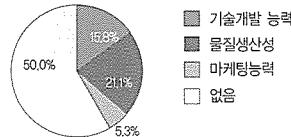
- 응답업체의 40%가 시설장비를 중심으로 인력 및 자금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8. 대기업 지원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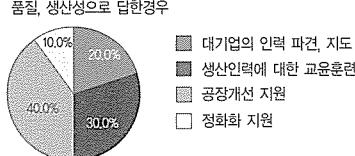
- 대기업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, 2차벤더에 대하여 품질·생산성, 기술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

- 품질생산성 부문은 공정개선 및 생산인력 교육훈련 중심으로 지원, 기술개발능력 부문은 인력자원 및 시설장비 지원이 대부분

귀사의 위탁기업의 모기업이 귀사에 지원했거나 하고 있는 분야



품질, 생산성으로 담한 경우



기술개발능력으로 담한 경우



9. 對 정부/위탁기업/대기업 건의사항

- 기술개발능력

건의처	주요내용
정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정책 추진 ▶ 시설(장비) 및 기술개발 투자비용 지원 ▶ 정부 기술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자금 지원
위탁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호 신뢰성 확보, 제품사용에 따른 문제점 협의 ▶ 정기적인 기술 교육, 기술경쟁력 제고 ▶ 개발인력 지원(충원)
대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실한 발주와 신뢰 ▶ 개발과제 협력, 풍부한 기술공유

- 품질·생산성

건의처	주요내용
정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력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▶ 장비투자비용·보조금 지원과 무료교육 확대
위탁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폭넓은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교류 확대 ▶ 공급제품에 대한 평가 제공
대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, 안정된 신뢰 유지 ▶ 교육 및 공정개선 지원

- 마케팅 능력

건의처	주요내용
정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 ▶ 영업거래시 안전성 보장(Risk 최소화)
위탁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실무자간의 폭넓은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▶ 기술개발 과제 협력 ▶ 해외 판로개척 지원
대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술정보 공유 ▶ 수평적 파트너로 인식, 상호 Win-Win 방안 강구